

# 관념사(觀念史) 연구에서 데이터베이스 방법론이 지니는 의의\*

류칭핑(劉青峰) | 홍콩중문대학 중국문화연구소  
번역 김민정 | 서울대학교

■ **논문분야** 중국 근현대사, 관념사방법론

■ **주제어** 관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 주요 키워드들의 역사적 의미, 관념사 연구,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이용하는 기본 기법, 지성사

■ **요약문**

1950년대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예증하기 위해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가 주요 키워드들의 역사적 의미 변화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을 확립한 이래 키워드의 역사적 의미분석은 관념사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었다. 이 글은 중국 근대 정치사상의 기원과 변천을 연구하는 데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법을 소개한다. 이 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관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 즉 관념(idea)은 키워드들을 통한 사고의 표현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또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통한 관념사 연구방법을 주로 제시할 것이다.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념의 표현으로서의 핵심어 확정과 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통한 예문 검색, 문장의 의미분석을 통한 키워드의 사전적·문맥적인 의미의 확인, 키워드의 의미 유형에 대한 분석과 통계, 그리고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포함된다. 우리는 위 사항들에 근거해 사상의 기원과 변형을 연구하며 이러한

\* 접수(2009. 9. 1), 심사 및 수정(2009.12.15), 게재확정일(2009.12.18)

이 글은 한림과학원 인문한국사업 <동아시아 기본 개념의 상호소통사업>에서 2009년 9월 25일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개념의 절합과 횡단>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글은 중국어로 쓰여 발표, 투고되었고 번역 이후 한림과학원 송인재 HK연구교수의 감수를 거쳤다.

방법을 통해 관념사 연구가 경험을 통해 검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통한 관념사와 지성사의 연구는 인문학의 주제를 다룬 연구에서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관념의 변천이 가진 내적 논리를 보다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기존의 관념들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들(예를 들면 언어 연구, 철학 등) 간의 협력을 위한 새롭고 강력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중국, 일본, 한국의 근대적 관념의 기원과 변천에 관한 연구에서도 그들의 동일한 언어적 근원, 단기적인 시간의 틀, 문헌의 상대적 집중 그리고 밀접한 상호 영향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이용한 동아시아 관념사 연구는 점점 강점을 갖게 될 것이다.

## 1. 들어가며

1997년 전미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는 그해의 조셉-레벤슨상(Joseph Levenson Awards)을 허비아(J. L. Hevia)의 『멀리서 온 사람을 회유하다: 청대의 전례문제와 1793년의 매카트니 사절단(Cherishing Men From Afar: Qing Guest Ritual and Macartney Embassy of 1793)』에 수여했다. 이 일은 학술계에 한바탕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조셉 에쉬릭(Joseph W. Esherick)은 홍콩중문대학의 격월간지 『21세기(二十一世紀)』 1997년 12월호에 글을 실어, 허비아가 채택한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은 텍스트를 독해할 때 그 어떤 정도도 피한다”라는 연구방법이 사료(史料)의 본뜻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호에서 벤저민 엘먼(Benjamin Elman)과 시어도어 후터스(Theodore Hutters)는 그와 팽팽히 대립하며 조셉의 글에 반박했다. 그들은 사료에 대한 허비아의 재해석은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근대화 사관(史觀)의 제약을 뛰어넘었다고 강조했다. 이로부터 1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이 토론에 참여했다. 논쟁의 초점은 마지막에 가서는 ‘멀리서 온 사람을 회유하다(懷柔遠人)’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로 집중되었다. 비평가들은 중국의

전통적인 천하관에서 “‘멀리서 온 사람을 회유하다’는 결코 평등하게 남을 대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어떻게 해도 ‘멀리서 온 사람을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sup>1)</sup> 논쟁의 쌍방은 모두 몇 항목의 사료에 의거하여, ‘회유원인(懷柔遠人)’의 의미를 분석하며 자신의 의견을 고수했다. 만약 수천만 자가 넘는 19세기 문헌에서 ‘회유원인’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대량으로 찾아내어 그것이 쓰이는 보편적인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면 당연히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이러한 도구가 없었다. 허나 지금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위의 논쟁을 간단하게 검증할 수 있다.

우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는 ‘회유원인’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 157 항목 있었다. 이 용어는 전부 전통적인 천하관의 의미 속에서 쓰이고 있었다. 예컨대 매카트니 사절단 사건으로부터 6년 뒤인 1799년에는 양광총독(兩廣總督) 길경(吉慶)이 영-프 군함이 광둥으로 오는 무역상선을 호송하는 것과 이들 군함이 식량을 공급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한 상소문에서 다음과 같이 상신(上申)했다. “신은 곧 중군참장(中軍參將) 당광무(唐光茂) 등을 파견하여 그 나라의 총병(總兵)에게 조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대들이 저 먼 바다를 건너 물건을 호송하여 광둥까지 왔으니, 대 황제 폐하께서 멀리서 온 사람을 회유하시매 덕망이 높으심을 마땅히 살피어야 할 것이다. 사람 수대로 식사량을 계산하여 배급식량의 구매를 허하노라. 다만 살피어 보건대 규정이 있으니, 상선은 황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나, 군함은 마카오의 원양만에 정박하고, 멋대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

1) 이상의 글은 모두 격월지 『21세기(二十一世紀)』에 발표되었다. 아래에는 잡지의 연호수와 페이지만을 적어두도록 한다. Joseph W. Esherick, 1997(12月號), 「後現代式研究: 望文生義, 方爲妥善」, 105~117쪽; Benjamin Elman · Theodore Hutters, 1997(12月號), 「馬嘎爾尼使團, 後現代主義與中近代中國史: 評周錫瑞對何偉亞著作的批評」, 118~130쪽; 張隆溪, 1998(2月號), 「甚麼是‘懷柔遠人’? 正名, 考證與後現代式史學」, 56~63쪽; 葛劍雄, 1998(4月號), 「就事論事與不就事論事—我看《懷柔遠人》之爭」, 135~139쪽; 羅志田, 1998(10月號), 「夷夏之辨與‘懷柔遠人’的字義」, 138~145쪽.

노라.”<sup>2)</sup> 길경은 규정대로 일을 처리하여 외국 총병에게 포고할 때, “대 황제 폐하께서 멀리서 온 사람을 회유하시매 덕망이 높으심을 마땅히 살피어” 청나라 황제의 은혜에 감사해야 함을 특별히 강조해야 했다. 이러한 용법은 19세기 관방 문건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것으로, 가령 어떤 “오랑캐 국가에 대 황제 폐하께서 성을 내리시어 멀리서 온 사람을 회유하고 광동 지역에서 무역을 허락하신 지 여러 해가 지났다”<sup>3)</sup>와 같다. ‘회유원인’을 포함하고 있는 상당수의 문장 가운데, 이 용어 앞에는 종종 ‘우리 황제 폐하를 알현하고’, ‘우리 황제 폐하를 보좌하여’, ‘우리 황제 폐하를 보좌하여 강압과 회유정책을 동시에 펴다’, ‘성군을 보좌하여’, ‘성조(聖朝)’ 등과 같은 경어가 붙기도 한다. 이로부터 보건대, 19세기까지 줄곧 이 용어는 임의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중(中)-외(外), 고(高)-저(低), 존(尊)-비(卑)가 분명하며 결코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필자가 이것을 예로 든 것은 논쟁의 시비곡직을 판가름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키워드나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장을 추출하여, (한 두 문장이 아니라) 대량의 예문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키워드가 사용되던 당시의 보편적인 의미를 판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사실 키워드와 그 의미의 계량분석법은 사상사 연구자에게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sup>4)</sup> 그러나 이 방법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면해 있다. “어떤, 총량이 얼마나 되는 문헌을 취해야 그 시기 해당 낱말의 의미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문헌의 유형과 총량은 개별 연구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이는 어

쥬 수 없이 개인의 주관성과 선호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문헌의 총량이 충분히 많다면 주관성이 적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 어떤 개별 연구자도 수천만 내지 수억 자에 달하는 문헌을 한꺼번에 기억하여 이를 빠르게 분석하고 통계 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런 능력은 컴퓨터의 장점이다.

1990년부터 대량의 역사 문헌들이 전자 텍스트화되면서 각종 역사 문헌의 데이터뱅크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1997년 홍콩연구지원국(RGC)<sup>5)</sup>에서 우리의 신청과제 「중국 현대 정치 개념의 기원에 대한 계량화 연구(中國現代政治概念起源的計量研究)」가 비준된 이래로<sup>6)</sup> 10여 년 동안 RGC와 기타 연구 기금의 지원 하에, 우리는 ‘중국 근현대 사상사 전문 데이터베이스(1820~1930)’ (이하 ‘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한 이를 이용해 10개 그룹의 중국 근대 주요 관념의 변천을 연구하여 1차적으로 거의 100개에 달하는 키워드의 역사적 의미를 분석했다. 동시에 과거의 사상사 연구와는 다른 방법을 산출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관념사 연구에서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방법이다. 2008년에 이와 관련된 논문이 『관념사 연구: 중국 현대 주요 정치용어의 형성(觀念史研究: 中國現代重要政治術語的形成)』이라는 책으로 묶여 출판되었다.<sup>7)</sup>

이러한 연구와 모색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인문학 연구 가운데 일종의 참신한 탐색 경향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본문에서는 주로 관념사 연구에서 데이터베이스 방법이 지니는 의의에 대해 논하겠다. 필자는 우선 ‘본 데이터베이스’와 결합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가지고 문헌 선택과 시스템 기능 설정의 측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논하겠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방법과 사상사 연구의 주요한 차이점 및 응용시의 분석 절차에 대

2) 吉慶, 1799, 『兩廣總督吉慶奏外夷貿易情形并催貨船依限回國片(四年十一月初三日)』, 『清嘉慶朝外交史料』 第1輯.

3) 百齡, 1809, 『兩廣總督百齡奏嘆商懇請准其祖家貨船照常貿易摺(十四年八月初七日)』, 『清嘉慶朝外交史料』 第3冊.

4) 예컨대, 1973년 스티븐 룩스(Steven Lukes)의 ‘개인주의(individualism)’ 주제 연구가 있다. 존 슈레커(John E. Schrecker)는 『清季外交史料』를 취하고, 해당 문헌에서 ‘주권(主權)’이라는 단어가 100페이지마다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그 빈도를 통계내어 1875~1894년 사이에 서구의 주권 관념이 어떻게 중국으로 유입되었는지 연구했다.

5) [역주] The Hong Kong Research Grants Council.

6) 1997년 홍콩연구지원국(RGC)의 지원을 받은 2년 과제 연구계획: “A Quantitative Study of the Formation of Certain Modern Chinese Political Concepts(CUHK4001/97H)”.

7) 金觀濤·劉青峰, 2008, 『觀念史研究: 中國現代重要政治術語的形成』, 香港: 香港中文大學當代中國文化研究中心.

해 언급할 것이며, 이어서 새로운 방법이 어떻게 인문·사회과학 연구에 보다 믿을 만한 경험적 기초와 검증적 특징을 가져다주는지도 논할 것이다. 끝으로 관념사 연구의 역사적 발전과 동아시아 협력에서 이 방법의 향후 전망을 살펴볼 것이다.

## 2.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데이터 발굴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도 반드시 연구 목표에 의거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문헌의 선택과 시스템 기능의 설정이 포함된다. 우리의 연구과제는 중국 근대 주요 정치 개념의 기원과 용어 확정에 대한 탐구로, 이 과제의 연구에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중국 현대 사상의 형성은 중화문화 고유의, 자생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근대 동서양문명이 충돌하는 과정 속에 중국인이 서구의 근대적 관념들을 전통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했으며, 나아가 중국의 근대적 관념으로 변화 발전시켰는가와 관련 있다. 둘째, 그것은 중국 근대적 관념의 독립적인 변화 과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구 근대 관념들의 전파 이외에도,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 사이에 복잡하게 뒤엉켜 일어났던 근대적 관념들의 전파와 상호작용과도 관련 있다. 이 두 가지는 거의 동시에 일어났기에 중국의 근대적 관념 연구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두 번째 점에서 중·일·한 학자들은 언어학과 사상사 연구의 측면에서 이미 중요한 연구 성과들을 상당히 축적했다. 그러나 바로 첫 번째 문제에서, 즉 중국이 서구의 근대적 관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실증 연구와 객관적인 평가가 결여되고 있다. 만약 첫 번째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상호작용으로서의 두 번째 고리는 더욱 정리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첫 번째 고리부터 먼

저 탐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곧 서구의 근대적 관념들이 중국어 문헌에 유입되고 전파되며 정착된 과정을 우선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문헌을 선택할 때 한문으로 된 일본 문헌과 한국 문헌은 잠시 배제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문헌은 약 1억 3천 자이다.<sup>8)</sup>

우리가 선택한 문헌은 1820~1930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 100년 동안 중국의 정치 관념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변환을 이루었다. 첫째, 내용의 측면에서는 전통적 관념에서 근대적 관념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기술 형태의 측면에서는 문언문에서 현대 중국어로 변화했다. 중국과 같이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특히 2000년 동안 제제(帝制) 구조를 띤 대국이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전통에서 근대로 거대한 변동을 이룩한 것은 인류 역사상 거의 없는 일이다. 중국어라는 어종(語種)의 단일성과 100년 안팎이라는 시간대의 집중—이러한 특징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문헌 선택의 측면에서 서양어권 국가들이 지닐 수 없는 강점을 갖게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기의 중국어 문헌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베이스가 5억, 10억 자로 확대되지만 한다면, 이 연구가 연구자의 주관성을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필요에 의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문헌을 다음의 6가지 큰 항목으로 간단히 분류했다. 1. 정치사상과 문화 중심의 신문, 잡지, 2. 공문서, 3. 문편(文編), 4. 사대부 논저, 5. 중국에 온 서양인 선교사의 중국어 저술과 정기간행물, 6. 신학문을 전파하는 교과서. 위와 같이 간단하게 분류한 것은 그것들이 서로 다른 측면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상대적으로 말해서 새로운 관념의 유입과 전파는 첫째, 다섯째, 여섯째 문헌에 비교적 많

8) '본 데이터베이스'는 류칭평이 편집을 주관했다. 수록된 문헌은 본고의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본 데이터베이스에 『신보(申報)』, 『동방잡지(東方雜誌)』와 같이 학계가 공인하는, 중요하고 시간적 연속성을 지니는 문헌을 수록하지 않은 까닭은 경비와 시간상의 제약 때문이다. 처음부터 이러한 문헌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연구를 시작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고, 둘째, 셋째 부류는 대체로 관변 사상 관념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넷째 부류인 사대부 논저는 정부 관료나 재야 선비의 사상 언론을 반영한다.<sup>9)</sup>

‘본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 기능도 연구 목표에 따라 설정되었다. 시작부터 우리는 그것이 데이터 발굴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여타 데이터뱅크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데이터 발굴(Data Mining)’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된 신개념으로, 컴퓨터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가리킨다. 그것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현재 이 방법은 이미 매니지먼트와 시장 최적화, 정보통신공학(telecommunication), 의료유전학(medical genetics)과 고생태학(paleoecology) 연구에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 인문 역사 연구에서 어떻게 ‘데이터 발굴’을 진행할 것인가는 ‘본 데이터베이스’가 첫 번째 시도였다.<sup>10)</sup> 우리는 그것의 핵심이 맨-머신 인터페이스를 통한 문장 아카이브 구축에 있음을 발견했다. 제3절에서 문장 아카이브에 대해 전문적으로 논하기 전에, 여기서는 우선 연구자가 키워드(혹은 용어)를 선정한 후 반드시 빠른 속도로 다양한 통계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본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기능임을 소개하려 한다.

1. 키워드의 연도별 사용횟수 통계 도표를 신속하게 생성한다. 이 기능은 연구자에게 선택된 키워드가 사용된 정황에 대한 거시적 역사 추세를 제공하여, 연구자가 그 키워드를 추적할 것인지 여부를 생각하게 한다. 또한 해당 키워

9) 현재 ‘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문헌의 양은 아직 충분히 많지 않고 전면적이지도 못하다. 6가지 항목에 대한 문헌의 분포도 최적의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 데이터베이스’의 문헌을 끊임없이 확충해나가고, 또 중국, 일본, 한국에 각각 동류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면, 삼국의 새로운 관념의 유입, 전파 방식과 속도, 그리고 새로운 관념이 삼국 사이에 전파된 경로와 상호 영향을 연구하는 데 있어 삼국 학자들 간의 더욱 긴밀한 공조 체계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10) 초기 ‘본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 기능 설계에 참여한 사람들은 베이징 공업대학의 명파즈(孟大志) 교수와 그의 학생들이었다. 2003년 이후에는 황용(黃勇) 선생이 총시스템 설계사를 담당했다.

드와 기타 어휘가 사용될 때의 상관성을 판별할 수 있다.

2. 문헌 속에서 작자가 사용하거나 각 문헌에서 해당 키워드를 사용한 횟수를 신속하게 통계를 낸다. 이 기능의 설정은 단어를 사용하는 작자의 편향이나 글의 제재, 내용으로 인해 어떤 키워드의 사용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옌푸(嚴復)의 『밀의 논리학(穆勒名學)』에는 ‘과학(科學)’이라는 단어가 백 번이 넘게 사용되었는데, 이는 분명 그해 ‘과학’이 사용된 총횟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결과는 분석할 때 연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3. 통계 결과를 정규화 처리한다. ‘본 데이터베이스’는 연도별 수록 문헌의 총자수(字數) 차이가 커서, 적게는 3~5백만 자, 7~8백만 자 내지 많게는 천만 자, 1~2천만 자 차이가 난다. 이를 기수(基数)로 삼아 특정 단어의 절대 사용 횟수를 연도별로 통계 낸다면 그 단어가 사용되는 일반적인 상황과 실질적 추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매년 해당 단어가 사용된 평균치를 제시하면 연도별 총자수의 불균등에서 오는 편차를 해소할 수 있다.
4. or나 and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두 키워드의 관계를 고찰할 수 있다.
5. 연구자가 매 키워드가 사용될 때의 서로 다른 의미 유형을 표시하거나 작자가 해당 단어를 사용할 때의 주관적인 평가(0; +; -)를 표시한 후, ‘본 데이터베이스’는 연도별로 해당 단어의 상이한 의미 및 평가를 분류 통계하여 문장 아카이브를 생성할 수 있다. 이는 맨-머신 인터페이스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으로, 본고 4장에서 자세히 소개할 것이다.
6. 중국어 특유의 감사(敬詞) 현상에 대해서는 감사를 ‘조음사( 音詞)’로 처리할 수 있다. 예컨대 ‘민주(民主)’라는 단어를 검색할 때, 그 단어가 ‘인민주장(人民主張)’이나 다른 단어 속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사이에 낀 ‘민주’는 연구자가 찾는 키워드가 아니다. 이때 ‘인민주장’을 조음( 音)으로 설정하면 ‘본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그것들을 배제하여 검색과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7. 이 밖에도 ‘본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예컨대

필명 관리(작가가 다양한 필명으로 저술한 문장 동시 검색 가능), 문헌 훑어 보기(瀏覽) 및 전자텍스트와 해당 페이지 원문 이미지 대조, 큰 단락에서 유사 문자를 찾는 모호 검색(주석이 없는 상황 하에, 어느 단락의 문자를 어떤 작가가 어떤 문장에서 가장 먼저 썼는지 비교 가능). 문헌에 대한 깊이 있는 발굴을 통해 역사적 사건, 인물, 언급된 이론을 검색하고 통계 등을 진행할 수 있다.<sup>11)</sup>

겉으로 보면, 상술한 내용 가운데 제7항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은 모두 간단해서 '데이터 발굴'의 인공지능 처리라고까지 말할 수 없다. 다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문학 연구(문헌 포함)는 복잡해서, 어떤 일을 사람이 하고 어떤 일을 컴퓨터가 할지는 연구 과정에서 벗어나 사전에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들의 신속성과 효율은 맨-머신 인터페이스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 기초 위에서만이 고급 기능을 갖춘 기능 설계가 연구의 필요에 의해 한 걸음씩 전개될 수 있다.<sup>12)</sup> 그렇다면 필자의 새로운 관념사 연구방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과 기존 사상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차별지점은 어디에 있는가?

11) 이러한 기능들은 이미 시스템 안에 설정되어 있지만, '본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용할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12) '본 데이터베이스'가 지닌 이상의 기능들은 관념사 연구방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따라 끊임없이 시스템 설계를 개량하여 갖추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있는데, 예를 들어 청대 고증을 모방하여 맨-머신 인터페이스를 통한 지명, 인명사전 편집, 청대 지도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 사용 등등이다. 이러한 신기능을 실현하려면 원래 있던 시스템을 개조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시험해 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시스템 기능의 설정은 방법론에 있어서 연구자의 사고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 3. 관념사(觀念史)와 사상사(思想史)의 차이: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

우리들의 새로운 방법은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중심으로 하는' 의미 연구로 개괄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별로 특이한 점이 없어 보일지 모르다. 왜냐하면 사상사 연구자들이 일찌감치 중국의 사상 관념이 전통으로부터 근대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절대다수의 새로운 기물, 새로운 사물, 새로운 지식, 새로운 관념이 유입되는 현상에 주목했고, 흔히 중국어 명칭을 정하거나 어느 신명사(新名詞) 하나를 번역함으로써 그것의 출현, 사용과 전파 상황을 추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상사와 언어학 학자들도 서증(書證)<sup>13)</sup> 분석법을 이용하여 어떤 어휘의 역사적 의미와 변화를 찾았다. 심지어 20세기 초 청 조정에서 신정(新政)을 실시할 때 서양과 일본에서 대량으로 신관념, 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명사도 범람하게 되었다. 1903년에 사람들은 이미 '신명사' 현상에 주목했다. "무릇 새로운 이치를 분명히 밝혀내어 학계, 정계에 알리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면 반드시 신명사를 만들어 사람들의 눈을 놀라게 함으로써 사고를 깨우쳐야 한다."<sup>14)</sup> 장타이엔(章太炎)은 일찍이 다음과 같이 신명사의 위력을 묘사했다. "옛날 사람들은 신성하여 범접할 수 없는 것을 명분(名分)이라 했다. 요새 사람들은 신성하여 범접할 수 없는 것을 첫째는 공리(公理)라 하고, 둘째는 진화(進化)라 하고, 셋째는 유물(唯物)이라 하며, 넷째는 자연(自然)이라 한다."<sup>15)</sup> 옛날에도 사상사 연구에서 키워드가 지니는 중요성을 중시했다면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이 그것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 똑같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도, 과거의 사상사 방법은 주로 개별 학자에 의존했다. 그들은 이전 사람들의 연구와 역사 문헌을 읽고,

13) [역주] 저작이나 주석에서 단어의 어원·의미·용법 등을 설명하면서 들어 주는 실례.

14) 「楚三言集」, 『湖北學生界』第5期, 1903년 5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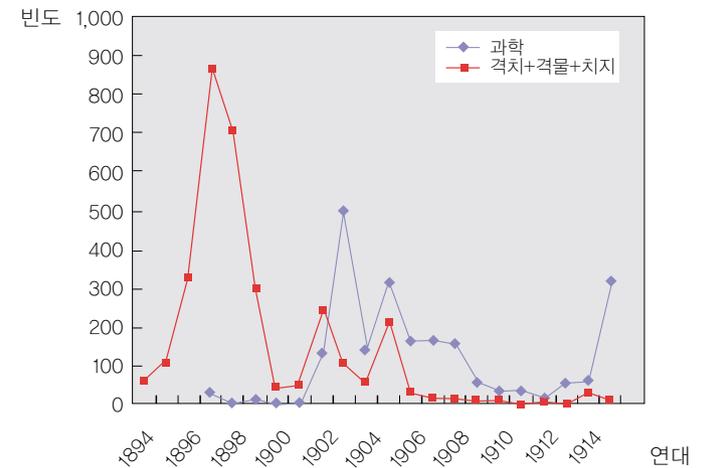
15) 太炎, 1908, 「四惑論」, 『民報』第22號.

다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텍스트를 선택했다. 그들은 주로 모 사상 유파, 모 개별 사상가의 대표적인 텍스트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방법은 연구대상의 기본 단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즉, 더 이상 유파, 사상가의 글을 중심으로 삼지 않고, 문장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다. 앞장에서 소개한 '본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시스템 기능의 설정은 대량의 문헌에서 뽑은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이나 단락을 둘러싸고 있으며,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는 관념사라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다음의 두 가지로 집중됨을 반영한다. 첫째, 문헌량이 충분히 많아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개별 연구자라도 다 읽고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야 한다. 두 번째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예문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장들은 데이터베이스 통계를 이용한 연구자의 분석대상이다.

첫 번째로, 컴퓨터의 저장량은 날로 늘어나 어떤 개별 연구자라도 감탄을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 점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을 중심으로 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이건 문헌을 읽고 카드 만드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확실히 각각의 문장이나 단락으로 말하자면,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나 컴퓨터가 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가 수천만 자에서 1억 자를 넘는 문헌으로부터 뽑아낸,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수천수만의 문장은 개별 연구자가 손으로 한 것보다 한 자릿수 이상을 크게 뛰어넘기 때문에, 이러한 양적 변화는 질적 변화를 초래한다.

우선 그것은 어떤 키워드를 써서 표현한 관념이 언제 기원했는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특정 시기에 사용된 모든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통계의 방법으로 의미 변화 과정을 형상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학(科學)'을 예로 들면, 개별 연구자는 기껏해야 수백만 자의 문헌을 읽고, 수백에서 1~2천 개의 문장(또는 단락)을 뽑아낼 수 있다. 만약 이 문장들을 50~100년으로 분산시키면, 각 연도별로 몇 개

은 열 몇 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분석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나 '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1~2분 안에 1억여 자의 문헌에서 '과학'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 수만 개를 뽑아내어 그에 대한 연도별 사용횟수를 통계분석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간의 사용 속에서 키워드의 변화 상황을 나타낸다. 특히 '과학'이 몇 년도에 '격치' 대신 사용되었는지를 알고자 할 때 데이터베이스 방법으로 만든 [그림 1]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sup>16)</sup>



[그림 1] '과학'이 '격치'를 대체하는 과정(1894~1915)

혹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방법이 수억 자의 문헌으로부터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수천수만 개의 예문을 즉시 추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텍스트를 파편화시키는 것 아닌가? 당신들은 문장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수천수만 개의 예문에 대한 통계를 낼 때 량치차오(梁啟超)의 명언을 보잘것없는 무명작가의 말과 동등하게

16) 金觀濤·劉青峰, 2008, 「從'格物致知'到'科學', '生產力」, 앞의 책, 335쪽.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제기는 관념사와 사상사 연구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사상사와 관념사의 차이에 대해 논하지는 않겠다. 다만 관념사 연구가 역사미론적 분석을 더 중시한다는 점만 지적해두도록 한다. 이는 곧 다음의 몇 가지를 매우 중시함을 의미한다. 첫째, 새로운 관념을 최초로 도입한 텍스트와 방식, 그것은 사상사의 입장에서 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작자나 주의를 끌지 않는 문장에서 나올 수도 있다. 둘째, 새로운 관념의 도입 과정 속에 동반되는 언어 현상과 그 의미 유형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 과정은 한 명 혹은 몇 명의 사상가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새로운 관념의 전파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마침내 명칭이 확정되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 과정에서는 개별 사상가의 단어 사용이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도 있고(랑치차오의 경우), 작게 미칠 수도 있으므로(옌푸의 경우)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관념사 연구로 말하자면 새로운 관념의 출현, 변화와 정착의 과정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제기한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방법은 관념사의 이러한 특징과 딱 맞아떨어져서 키워드에 대한 역사미론적 통계분석이 인문학 연구에서 하는 역할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민주(民主)’라는 단어를 조회하면 1896년에는 다음과 같은 예문이 나온다. “때마침 미국에서 민주를 바꿀 때를 만나니, 미국 상인들이 공식적으로 총통 두 사람을 뽑았다.” 이는 사상사 연구자들이 대개는 보지 않는 ‘세칙’ 문헌에 나온다.<sup>17)</sup> 그러나 해당 문장에서 ‘민주’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면, 이는 중국 민주 관념의 변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전통적인 용법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이다. 이는 관념사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과거 사상사 연구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문헌에서 뽑은 예문으로부터 우리는 종종 생각

지 못한 계발과 기쁨을 얻기도 한다.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방법은 역사미론적 분석의 중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문장 속 키워드의 의미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연구자의 개별적 차이에서 오는 이견을 검증 가능한 것으로 바꾼다. 주지하다시피 연구자마다 대표적 인물이나 대표작을 판정하는 기준이 다르다. 선택의 차이에 더해 텍스트 해독 자체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연구자가 역사 속의 사상과 사상가를 이해하는 내용에는 아주 큰 차이가 생긴다. 그리하여 동일한 사상가나 동일한 문헌에 대해서 저마다의 해석을 굽히지 않는다. 이에 따라 모종의 판정불가능성이 생겨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방법의 분석대상은 기본 단위가 더 이상 특정한 인물이나 문장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문헌 가운데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이다. 이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상상을 피할 수 있다. 동시에 문장에서 키워드가 나타내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훨씬 판정하기 쉽다.

다시 위에서 인용한 “때마침 미국에서 민주를 바꿀 때를 만나니, 미국 상인들이 공식적으로 총통 두 사람을 뽑았다”를 예로 들어보자. 이 문장 속에 쓰인 ‘민주’의 의미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전통적인 용법에서 보면 “하늘이 문왕께 명하시어, 백성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sup>18)</sup>로, 이것은 백성의 주인, 곧 황제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민주’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곧 중국의 정치적 전통에서는 아직 나타난 적이 없는, 백성의 선출로 생겨난 국가 최고 지도자이자, 바로 뒷 문장에서 말하는 ‘총통(總統)’이다. 이 문헌의 연도인 광서(光緒) 22년, 곧 1896년은 바로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이다. 서로 다른 연구자들로 말하자면, 해당 예문 속의 ‘민주’라는 단어 뜻을 판정할 때 이상과 같은 공통의 인식에 이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문장 속에 포함된 키워드의 의미 판정은 상대적으로 공통된 어의(詞意)의 이해와 중국어 어법에 근거해 행하는 것이다. 이는 한

17) 葛顯禮(〔英〕Henry Kopsch), 1903, 「光緒二十二年通商各口華洋貿易情形總論」, [造冊處稅務司]於寶軒齋莊輯, 『皇朝蓄艾文編』卷33 稅則1, 2654쪽.

18) 『尚書注疏』卷15, 「周書·洛誥 第十五」, 230쪽.

편의 글 속에서 쓰인 어의와 사상적 의미를 판정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정확성을 지니며, 상당히 큰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거듭 강조하듯이, 이는 문장을 중심으로 삼는 우리 방법론의 기초로, 이러한 기초가 있어야 과거 사상사와 관념사 연구를 검증 가능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주의할 것은 키워드를 포함한 예문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방법은 어의를 판정할 때, 키워드를 포함한 어떤 예문을 그냥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라는 점이다. 사실상 어의분석은 종종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의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해당 단어의 사전적 의미.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민주’의 전통적 의미. 둘째, 예문 속에서 해당 단어가 쓰인 의미. 특히 기존의 단어로 새로운 관념을 표현할 때 부여된 새로운 의미. 가령 앞에서처럼 ‘민주’가 백성이 뽑은 국가 최고 통치자를 가리키는 경우. 셋째, 개별 작가가 해설을 통해 어떤 키워드에 부여한 의미. 예를 들어 옌푸가 개인을 지칭하기 위해 발명한 ‘么匱’이라는 단어. 이 단계에는 작자의 주관성이 두드러져서 항상 보급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넷째, 그 단어가 들어간 예문이 포함된 글의 전후 문맥을 살펴 그 뜻을 판정. 이는 사상사 층위의 분석에 들어갈 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 4. 데이터 발굴: 맨-머신 인터페이스와 통계분석

‘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연구할 때, 우리는 키워드의 선택부터 문장 아카이브 구축까지 모든 단계에서 맨-머신 인터페이스를 통해야만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연구 목표에 의거하여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이다. 키워드의 선정은 어렵지 않아 보여도 사실 시작부터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연구 전체에 커다란 편차를 초래하기 쉽다. 연구자는 종종 여러 차례에 걸친 맨-머신 인터페이스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 키워드를 찾고 발견해야 한다.

비역사전공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는 교과서에서 배운 용어를 키워드로 삼는 것이다. 예컨대, 아편전쟁(혹은 갑오전쟁)을 연구하기 위해 ‘아편전쟁’(혹은 ‘갑오전쟁’)을 키워드로 선택하여 예문을 뽑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 연구자는 ‘아편전쟁’이라는 용어의 중국어 명명이 그 자체로 지나긴 과정임을 알지 못한다. 그것의 영어 명명은 1840년 영국 국회가 청조(淸朝)에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여부를 놓고 토론할 때, 『“런던시보(倫敦時報)』가 중국의 적의(敵意)를 가장 잘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휘를 만들어 냈다.”<sup>19)</sup> ‘본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면 그것이 중국어에서 최초로 쓰인 예는 량치차오가 1899년에 일본의 역사책을 소개할 때의 작은 표제에서이다.<sup>20)</sup> 이때는 이미 제1차 아편전쟁으로부터 거의 반세기가 흐른 후였다. 따라서 아편전쟁 혹은 갑오전쟁을 연구하려면 당시 중국어에서 이 중대 사건을 지칭하던 표현을 찾아내야 한다.

중국어의 또 다른 특징은 동음어가 많고, 지방 사투리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외국 인명, 지명, 국명을 음역하거나, 기물[전화(電話)와 텔레폰(特律風)], 사물[의회(議會)와 팔리아먼트(巴力門)], 개념[민주(民主)와 데모크라시(德莫克拉西)], 분과 학문[경제(經濟)와 이코노미(伊科諾迷亞)] 등을 음역할 때 표기법이 각양각색이다. 예컨대 중국어 문헌에서 나폴레옹(拿破崙)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연구한다고 하자. 그러나 ‘나(拿)’는 ‘曄’, ‘那’ 등 여러 표기법이 있다. ‘레옹(倫)’도 표기법이 다양해서 ‘崙’이나 ‘倫’, ‘喻’ 등등으로 쓰였다. 이 밖에도 ‘拿皇’과 같은 약칭이 많이 있다. 다시 말해 나폴레옹만 해도 최소 10여 종의 중국어 표기법이 있는데, 이때 ‘拿破崙’ 또는 ‘拿破崙’ 정도만을 검색한다면 수많은 나폴레옹 관련 예문들을 배제하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아직 연구자들이 사용할 만한 비교적 완벽한 중국어음역어사전이 없다. 때문에 연구자는 ‘나폴레옹’을 검색할 때 데이

19) W. Travis Hanes III · Frank Sanello, 2005, 『鴉片戰爭: 一個帝國的 迷和另一個帝國的墮落』, 北京: 生活·讀書·新知 三聯出版社, 93쪽.

20) 梁啓超, 1899, 「東籍月旦」, 『飲冰室文集之四』.

터베이스와 부단히 맨-머신 인터페이스를 해서 새로운 표기법을 찾을 때마다 검색 키워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상의 문제들은 단지 용어의 층위로, 문제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그러나 새로운 관념의 기원과 변천, 명명의 과정을 연구할 때에는 여러 가지 중국어로 동일한 새로운 관념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가령 「'공화'에서 '민주'로」라는 글을 썼을 때 우리는 현대 중국어의 '민주'라는 단어로 민주 관념의 변화를 추적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역사적으로 민주 관념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던 기타 어휘나 용어들, 가령 '민권(民權)', '민치(民治)', '데모크라시(德莫克拉西)', '데 선생(德先生)', '평민주의(平民主義)' 등등을 검색했다.<sup>21)</sup> 그러나 이 글을 『관념사 연구』라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최종 원고를 정리할 때, 우리는 19세기에 민주 관념을 지칭했던 또 다른 중요한 어휘인 '민정(民政)'을 빠뜨린 사실을 발견했다.

어떻게 이 누락을 발견했을까? 우리는 1억 2천 자까지 확대된 '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민주 관념을 연구한 이 논문을 비롯한 이전에 발표한 글들을 다시 검증했고, 맨-머신 인터페이스 속에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게 되었다. 예컨대 1873년 장더이(張德彝)는 파리의 정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초이레, 파리의 곳곳이 함락되었다는 소문이 들렸다. 국왕이 사로잡히고 중론이 민정으로 바뀌었다."<sup>22)</sup> '民主之國'도 자주 '民政之國'이라고 불렸다. 가령 1876년 이홍장(李鴻章)과 일본의 주화공사(駐華公使) 모리 아리노리(森有禮)의 대담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문이 있다. "일본은 민정의 나라인가, 아니면 군주의 나라인가?"<sup>23)</sup> 이러한 예문 속의 '민정'은 모두 민주 관념을 표현하는 데 쓰인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 그리하여 논문을 최종 마

무리 할 때 '민주'와 '민정' 두 단어의 비교를 보충했다.<sup>24)</sup> 그러자 심지어 어떤 연도에는 민주 관념으로 쓰인 '민정'의 횟수가 '민주'를 크게 초과했음을 발견했다. '민정'이라는 단어의 전통 용법 가운데 하나는 '백성을 위한 정치(爲民之政)'의 약칭으로 '팔정(八政)', 즉 "양식(食), 재물(貨), 제사(祠), 토지관리(司空), 교육(司徒), 범죄단속(司寇), 의례(賓), 양병(師)"을 포함한다.<sup>25)</sup> 현대 중국어에서 '민정'은 그 전통적인 용법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19세기에 민주 관념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키워드를 확정된 후에는 키워드의 의미 유형에 대한 연도별 분포를 나타내는 문장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이는 데이터 발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데이터베이스에서 키워드를 포함하는 모든 문장을 뽑고, 해당 단어의 연도별 통계 분포를 초보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사용되는 거시적 상황을 이해한다. 이어서 모든 예문을 미리 보고 연구대상이 아닌 예문을 제거한다. 가령 개인(個人) 관념을 연구할 때는, '한 사람(一個人)', '몇 사람(幾個人)'과 같은 류의 문장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한 후 연구자가 예문을 반복하여 연구, 판별하며, 해당 키워드가 사용될 때 어떤 주요 의미 유형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때로는 연구의 필요에 따라 작자가 그 단어를 사용할 때의 주관적인 가치편향을 고려해야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의미 유형에 대해 명시하고, 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모든 유형의 연도별 사용 상황에 대해 통계를 낸다. 이때, 문장 아카이브의 의미분석이 곧 완성을 고한다.

다음에는 '민주'라는 단어의 문장 아카이브 구축을 예로 들어 데이터 발굴 과정을 나타내겠다. '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조회하면 도합 700~800여 개의 문장이 나온다. 여기서 우선 감사(嵌詞)를 제거하고, 다시 반복하여 예문을 연구, 판별하면 '민주'라는 단어가 쓰인 경우를 다음의 4가지 주요 의

21) 원문은 영문으로,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Jin Guantao and Liu Qingfeng, 2005, "From 'Republicanism' to 'Democracy': China's Selective Adoption and Reconstruction of Modern Western Political Concepts(1840~1924),"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Exeter, England), Vol.26 No.3, 467~501쪽.

22) 張德彝, 1873, 『隨使法國記』.

23) 李鴻章與森有禮, 1884, 「照錄李鴻章與森有禮問答節略」, 『清季外交史料』之五.

24) 金觀濤·劉青峰, 2008, 「'主', '民政'の使用次數(1864~1915)」, 앞의 책, 275쪽의 그림 7.1 참조.

25) 胡渭, 『洪範正論』卷1.

미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인 용법으로, '민주'는 황제를 가리킨다. 앞에서 이미 든 예 이외에도, 『문선(文選)』에 실린 반고(班固)의 「전인(典引)」에는 “백성의 주인을 명하자 오행(五行)의 덕이 운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채옹(蔡邕)은 여기에 “민주(民主)는 천자이다”라고 주를 달았다. 혹은 줄여서 ‘백성의 주인(民之主)’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현대 중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의미로, 인민지배와 인민통치를 말한다. 또는 간단히 ‘백성이 다스리다(民主之)’라고 한다. 세 번째는 군주제와 상반되는 정치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종종 ‘民主之國’, ‘民主國’, ‘民主黨’과 같은 구로 표현된다. 네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민주(民主)’로, 백성이 뽑은 국가의 최고 영수를 가리킨다. 끝의 두 가지는 ‘民主’라는 명칭의 확정 과정에서 나온 과도기적인 용법으로, 네 번째 의미는 현재 이미 사용되지 않는다.

과도기적 상태의 용법은 참 흥미롭다. 1870년대에 네 번째 용법이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않은 듯이 보여서 그것을 반복하여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1874년 12월 『만국공보(萬國公報)』의 「‘민주’선거(選舉民主)」에는 미국의 대선을 소개하는 다음과 같은 단락이 있다. “미국의 ‘민주’는 프레지던트(伯理璽天德)라고 하며 워싱턴을 시작으로 이미 백 년이 되었다. 대체로 4년마다 바꾸어 선발하며, 재위 기간에 백성들의 신망을 많이 얻은 자는 4년간 연임하는 경우도 보았다. 지금의 미국 황제(美皇) 그랜트도 이미 4년을 연임하고 있으니 이번이 2번째이다. 그랜트는 재위에 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여 다시 선거할 때가 됐을 때, 백성들이 그대로 또 그랜트를 뽑아 4년간 미국 주인(美主)에 앉히려려고 했는데, 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랜트가 이미 극구 사양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sup>26)</sup> 이 짧은 글 속에서 president 한 단어를 번역하는 데 ‘民主’, ‘伯理璽天德’, ‘美皇’, ‘美主’ 4개의 어휘가 동원되었다. 용어의 혼란은 당시 선교사와 사대부가 중국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백성이 뽑은 최고 통치자를 나타내는 적당

26) 「選舉民主」, 『萬國公報』 同治 13年 10月 12日(1874. 12).

한 중국어 어휘를 찾을 수 없는 데서 느끼는 곤혹스러움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 준다. 이후로 “북미대륙의 ‘민주’ 링컨이 남부 미국과 수년 간 교전(交戰)했다”<sup>27)</sup>와 같이 이것도 ‘민주’의 비교적 흔한 용법이었다.

연구자가 19세기 문헌에서 ‘민주’의 4가지 주요 의미 유형을 확정한 후에는, 다시 문헌의 작가가 해당 단어를 사용할 때의 가치편향을 한 문장 한 문장 분석한다(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을 때는 +로 표시하고, 중성적인 의미는 0, 부정적인 의미는 -로 표시한다. 모든 키워드를 다 이렇게 분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는 이상의 분석을 행하는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부호 표시를 한다. 그런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아래와 같은 ‘민주’ 문장 아카이브 통계표를 생성한다.

〈표 1〉 ‘민주’의 의미분석(1864~1915)<sup>28)</sup>

분류	군주			백성이 주재하다 혹은 인민통치			세습군주제와 상반 되는 정치제도			백성들이 뽑은 대표			합계
	+	o	-	+	o	-	+	o	-	+	o	-	
평가													
1864								18					18
1867					1			3					4
1873								2			1		3
1875		1			5			7					13
1876					1			2					3
1877					1			4	1				6
1878								2	11	1		1	15
1879								5	3				8
1880								9			1		10
1881								9			1		10

27) 唐才常, 1897, 「交涉學第四」, (續)(湘學新報) 『湘學報』 7月 29日, 44쪽.

28) 이 표는 진관타오, 류칭평의 『관념사 연구』 253~254쪽에 있는 표 7.1에서 따온 것이다. 가오차첸(高超群) 선생이 이 표를 분석 통계했다. 1864년 이전에는 ‘민주’라는 단어가 극히 적게 사용되었다. 본 표는 1864년 『萬國公法』의 출판부터 통계를 냈다. 이 밖에 ‘민주’가 고 유명사의 일부로 쓰인 경우(약 160회)에 ‘민주당(民主黨)’은 이 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882										21										21
1883										10										10
1885										12	2									14
1886		1			1					12										14
1887					2					2				1						5
1888										8										8
1889					6					2										8
1890										13										13
1891										7				2						9
1892		4			1					13				1						19
1893										40										40
1894										13										13
1895										102				38						140
1896					12		1	11	72	3			7							106
1897		5				64	29	123	7	2	15									245
1898						66	20	50	22		9									167
1899		1					6	37	7		2									56
1900					6			2	24	11			1							44
1901					30			15	84				1							130
1902					1	15		6	205				3							230
1903					52		10	34	133				8							237
1904						10	11	9	407				1							438
1905					16	8	20		72	1		1	1	22						140
1906					58	52	54		91	1		2								258
1907					13	19	3		44	2		1								82
1908					7	12			40											59
1909							22		122											144
1910					8		3		56	1		1								69
1911							31		9	2		9								51
1912							10		31											41
1913							1		163				1							156
1914									21										5	26
1915					10	24	1		142									33		210

지면을 상당히 차지하는 이 통계표를 본고에서 굳이 인용하는 까닭은 이것이 데이터 발굴을 통해 구축한 ‘민주’ 문장 아카이브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로, 키워드의 4가지 의미 유형이 역사적으로 사용된 상황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예문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일환이다. 이 통계표만 보아도 1864년 이후 전통적 의미와는 다른 두 번째, 특히 그로부터 파생된 세 번째 의미가 출현하여 1896년 이후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또한 ‘민주’가 현대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 1897~1898년에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참고가 된다.

문장 아카이브의 구축은 연구자에게 상당히 견실하고, 반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키워드의 문장 아카이브를 구축한 뒤에는(한 편의 글에 대해 종종 여러 개의 키워드 문장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하는데, 가령 민주 관념을 연구하려면 ‘공화(共和)’ 등과 같은 단어의 문장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한다), 연구자는 이것을 소재로 삼아 사상사, 관념사의 통상적인 글쓰기 분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문헌을 더 많이 확충할수록 연구자가 문장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과 정력도 더 많아진다. 가령 ‘과학’, ‘민주’에 각각 만여 개 또는 8천 개에 달하는 예문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많은 예문에 대해 데이터 발굴을 진행한다면 그 작업량은 종종 개별 연구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다. 우리는 연구단체에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는 『관념사 연구』에 그토록 긴 감사의 말 명단이 있는 외에, 각 편의 글마다 관련 예문의 분석 작업을 어느 연구자가 했는지 상세히 주를 달아 밝혀놓은 이유이다. 이로부터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의 응용은 종종 과거 연구자들의 개별 작업 패턴을 타파하고, 연구단체 공동 작업의 힘을 빌려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방법으로 구축한 문장 아카이브의 보유가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글쓰기와 분석단계에서 연구자에 대한 요구가 훨씬 높아졌음을 몸소 깨닫게 되었다. 수많은 문제의 탐구, 예컨대 중대한 역사적 사

건과 관념의 변천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서구의 현대적 관념이 중국에 들어온 후 그것과 전통적 문화 관념 및 제도문명 사이의 충돌, 흥망, 전파, 치환 과정 속에서 어떤 주목할 만한 현상들이 있었나. 이러한 현상들은 동서양 및 동아시아 중·일·한 삼국 사이의 상호작용과 연관되어 있으며, 여러 분과 학문 간의 교차, 예컨대 사상사와 언어학이 공통으로 당면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국가, 서로 다른 유형의 전공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이 방법이 끊임없이 성숙함에 따라, 각국의, 다른 학과의 연구자들 사이에 더욱 효과적인 협력이 촉진될 것이라고 믿는다.

## 5. 끊임없는 검증

일단 어떤 키워드의 통계분석 결과를 얻은 후에는 해당 단어의 역사적 의미와 사람들이 그 단어에 대해 품고 있는 가치지향의 경험적 이미지를 상당히 또렷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사상사 연구는 지닐 수 없는 견고한 기초이다. 그 데이터분석의 신뢰성은 거의 경제사, 정치사와 견줄 수 있으며, 이 중대한 변화로 인해 관념사 연구는 끊임없는 검증 속에 놓인 개방적 영역이 되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끊임없는 검증 속에 놓인 개방성”이란 데이터베이스의 문헌양이 한 자릿수 늘어날 때마다 과거의 연구 결론을 한 차례 새롭게 검증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인문사회과학 같지 않고 어딘가 자연과학 같다. 이에 대해 우리는 깊이 체득한 바가 있다. 우리의 연구는 일련의 연구과제 지원 하에 단계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문헌은 대략 3천만 자 가량 되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6~7천만 자로 확충되었으며,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야 1억 자 이상으로 확충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긴다. 3천만 자에 근거해서 얻은 결론이 6,7천만 자~1억여 자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2006년부터 한 연구단체의 협조 아래,<sup>29)</sup> 우리는 2년의 시간을 들여서 과거 다른 단계에서 발표했던 논문들을 1억여 자의 ‘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전부 다시 한 번 검증했다. 그리고 문헌양의 대대적인 확충이 연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한 후 최종적으로 『관념사 연구』를 완성했다. 3천만 자 가량의 문헌으로 작성한 몇 편의 논문에서 우리는 이미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거시적인 새로운 관점을 도출했다. 예컨대 중국 근현대 사상사의 시대구분 문제에서 우리는 1895년 이전을 근대라 하고, 1895~1915년의 20여 년 가량을 현대라 하며, 19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당대라고 부른다. 이 견해가 성립될 수 있는가? 우리가 1억여 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모든 논문을 검토하자. 그 결과 우리가 제기한 새로운 관점이 성립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단계구분이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가오차쥬(高超群) 선생께 청하여 92개의 관련 정치용어사전을 만들었다.<sup>30)</sup> 기쁘고 안심되는 것은 100개에 달하는 단어를 관찰하는 가운데 이러한 시대구분이 똑같이 유효하다는 점이다. 물론 문헌량의 대대적인 확충 후, 우리는 이전의 논문에 대해서도 모종의 중요한 수정과 보충을 가했다. 가령 앞장에서 언급한 ‘민정(民政)’이란 단어와 민주 관념의 도입이 그러했고, 그 밖에 ‘부강(富強)’이라는 단어가 근대 경제 관념의 변천 속에 도입된 것도 간과할 수 없다.<sup>31)</sup>

이러한 검사는 물론 공인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견해에 대한 검증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 10년 전 데이터베이스 검색법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부단히 이 방법을 사용해서 사상사에서 거의 정설로 굳어진 어떤 관점들을 검증했다. 예컨대, 5·4운동이 80주년을 맞은 1999년에 우리

29) 4페이지에 달하는 그 책의 감사말을 참고하라. 예문분석에 있어서 특별히 가오차쥬 선생, 우통푸(吳通福) 박사, 위홍량(魚宏亮) 박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30) 金觀濤·劉青峰, 2008, 附錄2 「百個現代政治術語詞意彙編」, 앞의 책, 479~571쪽 참조.

31) 金觀濤·劉青峰, 2008, 「從‘富強’, ‘經世’到‘經濟’—社會組織原理變化的思想史研究」, 앞의 책, 참고.

는 신문화운동이 정말로 과학과 민주라는 양대 가치를 높이 들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 관념은 과학만큼 그렇게 중국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수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종의 왜곡을 겪었으리란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다.<sup>32)</sup> 또 역사에서는 ‘신해혁명’이 1911년 청 왕조 붕괴의 주도 사상 및 주요한 사회 역량을 초래했다고 하는데, 이를 정말 혁명이라 개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신사(紳士)를 주체로 하는 공화주의 사조였다고 생각한다.<sup>33)</sup> 또 다른 예로, 과거에 중국인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수용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문구는 “10월혁명의 포성이 중국에 마르크스주의를 가져다주었다”였다. 그러나 우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와 반대로 중국인은 먼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수용하고 1921년에 레닌주의식 정당을 조직하여 ‘러시아를 본보기로 삼는다’는 노선을 선정한 후에야 비로소 10월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중시하고 강조하기 시작했다.<sup>34)</sup> 본문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지는 않을 것이니, 관심 있는 독자들은 관련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우리는 다만 이와 같이 정설이 된 듯한 중요한 문제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던 까닭을 설명하려는 것뿐이다. 그것은 키워드를 포함한 예문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대량으로 예증을 얻고 이를 근거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논술을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저작의 논점과 서술상의 문제도 검증할 수 있다. 일본이 청 조정의 신정(新政)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논증한 런다(任達)의 『신정혁명과 일본: 중국, 1898~1912(新政革命與日本: 中國, 1898~1912)』은 1993년 출판된 후 널리 학계의 중시를 받았으며, 2006년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작자는

32) 金觀濤·劉青峰, 1996, 「新文化運動的另一種圖像」, 『五四運動八十周年學術研討會論文集』, 臺北: 國立政治大學文學院, 809~843쪽.

33) 金觀濤·劉青峰, 2008, 「歷史的真實性—試論數據庫新方法在歷史研究中的應用」, 앞의 책, 445~449쪽 참조.

34) 金觀濤·劉青峰, 2008, 「五四《新青年》知識群體為何放棄‘自由主義’?—重大事件與觀念變遷互動之研究」, 앞의 책, 396~402쪽 참조.

‘일러두기’에서 다음과 같이 그 서적의 중요한 새로운 견해를 제기했다. “2,100년이나 된 중국의 제정(帝政)체제 모델과 그 철학적 기초를 분쇄한 것은 손중산(孫中山)과 그 동료들을 중심으로 하는 1911년의 정치혁명이 아니었다. 오히려 1901~1910년 만청 정부가 펼친 신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과 체제혁명이었다.” 이 저서의 키워드는 ‘신정’으로, 작자는 특별히 그 단어에 긴 주석을 달았다. 그는 ‘신정’이란 단어가 “19세기 80년대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시찰을 간 자들이 메이지유신 시기의 각종 개혁 조치를 서술하기 위해 사용한 것”임을 지적했다. 이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긴 주석에는 한국의 역사학자 민두기(閔斗基)의 연구 성과도 인용되어 있다. “1895년에 ‘신정’이란 단어는 ‘새로운 정책’을 의미했다. 1898년에는 ‘새로운 제도’나 ‘체제개혁’을 의미했다.”<sup>35)</sup>

‘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신정’을 조회하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다. ‘신정’은 도합 4천여 차례 사용되었는데, 그 가운데 사용횟수가 가장 많은 연도는 1898년(708회), 1902년(530회), 1903년(568회)으로, 이 결과는 작자의 논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신정’이란 단어가 작자가 말한 것처럼 19세기 80년대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시찰을 간 자들이 메이지유신의 각종 정책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을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일찍이 1846년 양정단(梁廷柵)은 미국의 상황을 소개하는 글을 쓰며 ‘신정’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7월 초나흘(곧 중국의 5월이다)에 워싱턴이 벽보를 붙여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렸다. ‘무릇 왕법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나라를 세우는 것은 반역행위이니, 어찌 이를 무릅쓰고 오명을 뒤집어쓰겠는가? 왕이 세금을 더 거두고 또 불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면 어찌하겠는가? 그때는 신정을 세워서 스스로 강역을 지키는 것이 부득이한 일이다.’ 1850년 혁저(突

35) 任達, 2006, 「導言」, 『新政革命與日本: 中國, 1898~1912』,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쪽, 4쪽의 각주 1번; 그중 민두기의 관점은 그의 저서 Min Tu-ki, 1989, *National Polity and Local Power: The Transformation of Late Imperial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咸豐帝)가 등극한 후 정치 쇄신에 힘쓰자, 정부 문서에 '신정'이 여러 차례 사용되었다. 예컨대, “황상께서 신정을 행하시던 해에 인재 양성이 시급했다.”<sup>36)</sup> “황상께서 신정을 밝히고 매사에 실질을 강구하시니 도적을 소탕하는 일이 특히 근래의 급선무가 되었다.”<sup>37)</sup> 또 예컨대 “영국 여왕이 항구로 서신을 보내어 총사령관 매한(旻翰)에게 다음의 사실을 알렸다. 내용인즉, 정해진 기일에 상해, 천진으로 가서 중국의 신정에 대해 알아보고 각 성의 상황이 어떠한지 탐방하라는 것이었다.”<sup>38)</sup>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문(古文)에서 '신정'이란 단어는 최고 당국자가 추진한 개혁으로도 사용되었음이 확실하다.

그 서적에서 중국의 신정에 대한 일본의 영향을 논하려면 20세기 초 일역(日譯) 신명사가 대량으로 중국에 도입된 상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 한 소설의 표제는 “현대 어휘: 일본에서 중국으로의 유입”이다. 이 절에는 다음과 같은 단락이 있다. “외래어에 대한 가오밍카이(高名凱)와 리우정옌(劉正琰)의 연구는 입론이 신중하여 우리의 연구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의 저작은 일본에서 기원한 현대 중국어를 다음의 세 부류로 나누었다. (1) 순수 일본어에서 기원한 현대 중국어 외래어. 중국 고문(古文)에는 없는 일본어 고유의 한자 조합으로, 예컨대 복무(服務), 방침(方針), 해결(解決), 신청(申請), 상상(想像) 등이 그것이다. (2) 일본인이 고대 중국어에 원래 있던 단어를 사용하여 구미 언어를 음역한 단어. 예컨대 법률(法律), 봉건(封建), 공화(共和), 경제(經濟), 사회(社會), 사상(思想), 문학(文學), 정치(政治) 등이 그것이다. (3) 먼저 일본인이 한자 조합을 사용하여 구미 언어를 음역하거나 부분적으로 음역한 단어를, 다시 중국인이 개조해 만든 현대 중국어 외래어. 예

컨대 미술(美術), 추상(抽象), 동맹(同盟), 현실(現實), 원칙(原則), 과학(科學), 관념(觀念), 정부(政府), 사회주의(社會主義), 자본(資本), 상업(商業), 수학(數學), 철학(哲學) 등이 그것이다.”<sup>39)</sup> 작자가 말한 대로 가오밍카이와 리우정옌은 이 분야에서 창의적인 공헌을 했다. 그러나 그 뒤로 새로운 연구가 많이 나왔고, 지금은 데이터베이스까지 생겨서 어떤 결론은 그렇게 독단할 수 없다.

앞에서 가오밍카이, 리우정옌이 제기한 세 가지 부류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부류는 상황이 아주 복잡해서 중일 문화 상호작용과 관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논하지 않겠다. 첫 번째 어휘는 상대적으로 단순한데, 작자는 “중국 고문(古文)에는 없는 일본어 고유의 한자 조합”이라고 명확히 정의내리며 단어 5개를 예로 들고 있다. ‘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이 5개 단어를 조회하면 앞의 두 단어 ‘복무’와 ‘방침’은 확실히 중국어에 본래 없던 것이지만, 다른 3개는 중국 고문에서도 사용되었다. 예컨대 ‘해결’이란 단어는 1860년 프랑스 사무의 처리를 논하는 예문에 “오랑개와 관련된 업무를 동일한 법률로 처리하면, 자연히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sup>40)</sup>가 있다. 1884년에는 “중군(曾軍)에서 배 두 척, 절군(浙軍)에서 포함(砲艦)을 복건 지역으로 이동 배치하도록 칙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실로 그러하면 (적들과) 싸우거나 화친하거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니, 바라건대 배가 없다고 거절하지 않도록 명을 내려주시기를 거듭 주청하옵니다”<sup>41)</sup>가 있다. ‘신청’이란 단어는 일찍이 17세기에 사용되었는데 가령 순치(順治) 연간(1644~1661)의 문헌 가운데 다음과 같은 예문이 있다. “청컨대 독무(督撫)에게 명하시어 의례를 융성케 하시면, 혹 세력이 강하다고 제멋대로 구는 자들을 끝까지 치죄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sup>42)</sup> “필요한 인력과 자재는 정해

36) 汪元方, 1851, 「請飭停止增附捐教疏(咸豐元年)」, 武進盛康旭人, 『皇朝經世文續編』卷21 吏政4·銓選.

37) 汪元方, 1850, 「請整頓捕務因時制宜疏(道光30年)」, 秀水 王延熙 翼亭 王樹敏 政聲, 『皇清道咸同光奏議』卷56 兵政類·保甲.

38) 徐文縉 等, 1850, 「徐廣縉等又奏英報所載文翰赴津原因并有以福建港口換臺灣之陰謀片」, 『咸 朝籌辦夷務始末』卷2.

39) 任達, 2006, 앞의 책, 125쪽.

40) 奕 𨍆, 1860, 「奕欣等又奏法使照會請給南北堂執照又有國書未呈等語片」, 『咸 朝籌辦夷務始末』卷68.

41) 張佩綸, 1884, 「閩海疆會辦張佩綸致樞垣請旨撥南洋兵船赴閩電」, 『清季外交史料』卷42.

42) 吏部侍郎 梁清標, 1655, 「敬陳用人三事疏(順治12年)」, 『皇朝經世文編』卷17 吏政3·銓選.

진 가격이 있다. 무릇 각 군영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문서를 갖추어 신청하고, 모두 독무의 허가를 받는다.”<sup>43)</sup> ‘상상’이란 단어는 관방(官方) 문헌에서 뿐만 아니라 문인의 시 속에서도 사용되었다. 예컨대 왕타오(王韜)가 1879년에 쓴 『일본여행기(扶桑遊記)』에는 다음과 같은 시구가 나온다. “거미줄은 집을 덮고 매미 소리 구슬픈데, 끝도 없는 황량함에 덧없는 상상만”, ‘해결’, ‘신청’, ‘상상’ 세 단어의 의미는 현대 중국어와 별 차이가 없다.

어떤 단어가 중국 고유의 용어인지, 아니면 일본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것인지를 판별할 때는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령 ‘전제(專制)’는 예전에는 일본에서 전해졌다고 확신했다. 사토 신이치(佐藤慎一)도 그의 유명한 저서에서 그렇게 여겼다. “‘전제’라는 단어는 본래 10년 전에는 없던 것이었다. ‘전제’는 그 밖의 수많은 전문용어와 마찬가지로 20세기 초 일본에서 도입된 용어였다.”<sup>44)</sup> 사실상 ‘전제’는 중국에 원래 있던 어휘로 그 뜻은 현대 중국어와 다르다. 그러나 모종의 정치체제를 가리키는 전문용어로서 중국어에 출현한 것은 20세기 초가 아니라 1893년 정관응(鄭觀應)이 변법문제를 논하면서였다. “논자들이 말하길 변법 중에 쉬운 것으로 전제정치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 말하는 바에 식견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무턱대고 전제정치를 말하는 것은 결국 군주정치의 공정함만 못하다.”<sup>45)</sup> 정관응의 이와 같은 ‘전제’ 사용이 일본에서 도입된 것인지는 한층 자세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어떤 용어 사용의 변화, 예컨대 천하관이 규정한 ‘이무(夷務)’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준비고하의 구분이 약화된 ‘양무(洋務)’를 사용하는지는 사용자가 어떻게 중국과 외부의 관계를 대하고 있는가라는 중요한 관념의 큰 변화를 반영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용어 사용의 변화가 언제 나타났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고사카 시로(高坂史朗)는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시

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877년 중국이 주 런던 공사를 파견했고, 청 정부의 ‘이무’ 외교는 ‘양무’ 외교로 바뀌었다.”<sup>46)</sup> ‘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조회하면 일찍이 1814년 관방(官方) 문헌에서 이미 ‘양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뜻은 문자 그대로 양인과 왕래하는 구체적인 사무를 가리킨다.<sup>47)</sup> 이는 제1차 아편전쟁 때 황제가 보내는 밀서에도 사용되었다. “군기대신 등에게 양무를 바로잡아 폐단을 없애달라고 청한 어사 낙병장(駱秉章)의 상주에 근거할 것을 명하였다.”<sup>48)</sup>

유사한 예는 너무 많아서 한없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트집을 잡으려고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방법이 사상사, 관념사 연구에 가져올 중요한 변혁에 대해 지적하려는 것뿐이다. 중국 사상사 연구의 선배이신 왕얼민(王爾敏) 교수가 이 연구를 평가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오늘날 철학 연구의 통계학파이다.” 이런 방법이 개선되고 보급됨에 따라 우리가 이미 끝낸 연구를 포함한 현존하는 모든 연구를 끝없이 검증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 6. 역사언어학과 동아시아 관념사 연구

관념사는 본래 인문학 연구에서 실증주의 사조와 전문 분과가 나날이 세분화되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유심주의자’ 철학자 알프레드 푸이에(Alfred Fouillée)가 19세기에 유행하던 과학 결정론에는 관계하지 않고 인간 심령의 자유로운 생각이 인류의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

43) 南嶺巡撫 國器, 1656, 『軍器歸營製造疏(順治13年)』, 『皇朝經世文續編』 卷71 兵政2·兵制下.

44) 佐藤慎一, 2008, 『近代中國의知識份子與文明』,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241쪽.

45) 鄭觀應, 1893, 『自強論』, 『盛世危言』.

46) 高坂史朗, 2006, 『近代之挫折: 東亞社會與西方文明的 撞』,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58쪽.

47) 蔣攸鏞 등이 쓴 「兩廣總督蔣攸鏞等奏退商潘致祥熟練洋務請令仍充洋商片(19년 10월 19일)」에서 한 상인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집안은 원래 부유하다고 이름났으며, 양무에 가장 능숙해서 오랑캐나 내지 상인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다(其身家素稱殷實, 洋務最爲熟練, 爲夷人及內地商民所信服.)”, 『清嘉慶朝外交史料』 第4冊, 404쪽.

48) 廷寄, 1839, 『據駱秉章摺著林則徐等妥議具奏』, 『道光朝籌辦夷務始末』 卷7, 116쪽.

을 때부터, 독일 철학자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가 관념을 수단으로 인문과학이 자연과학보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을 때까지, 다시 20세기 초 관념사라는 분과 학문이 확립되었을 때까지 그것은 줄곧 실증 연구와 전문화에 반대하는 것을 자신의 주지(主旨)로 삼아왔다. 이 때문에 관념사 연구는 인문정신의 대표로서, 순수 사변철학적인, 심지어 반실증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되자 관념사는 20세기에 전문화된 분과 학문이 설정되는 상황 속에서 줄곧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1930년대에 러브조이(A. O. Lovejoy)는 사상 연구가 이미 부자연스럽게 12개 ‘학문’으로 분열되었음을 개탄했다. 문학, 예술, 과학, 신학, 교육, 사회사상 등과 같은 학과의 학자들은 저마다 억지로 서구사상 체계의 일부를 끌어다가 서로 고립적으로 자신만의 밑밭에서 지극히 세밀하게 사상을 분할했다. 그 과정에서 온전한 유기체가 사망했다. 그리하여 그는 오직 ‘관념사라는 한 가지 이름의 학문을 세워야 그것을 기사회생시킬 수 있다고 했으며,<sup>49)</sup> 그 기초 작업을 했다. 이후 관념사 연구는 끊어질 듯 말 듯한 가는 실처럼 근근이 그 명맥을 유지했지만, 40~50년 동안 관념사 연구는 시종 철학에 종속되거나 사상사에 종속되는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다.

1930년대에 러브조이가 관념사 연구의 기본 강령을 제기한 후, 관념사 연구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성과는 1968년 『관념사저널(Journal of History of Ideas)』의 편집인 위너(P. P. Wiener)가 252명의 전문가를 모아 편찬한 『관념사대사전(Dictionary of the History of Ideas)』의 출판이다. 이는 관념사 연구 성과의 첫 번째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관념사대사전』은 과학, 예술, 문학, 정치, 법률, 종교, 철학, 심리학 등 분야의 310개 관념을 고찰하여, 그것을 ‘법률과 정치’, ‘철학과 종교’, ‘문학과 예술’, ‘자연과 역사’의 네 부류로 나누고 이러한 관념들의 기원과 변천을 상세히 논술했다. 『관념사대사전』은 현

재까지 관념사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기초이지만 40년 이래 그 한계가 점점 확연해지고 있다. 서구 관념의 기원과 변천만을 정리했다는 것 외에도,<sup>50)</sup> 가장 큰 문제는 경험적 기초가 결핍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사전은 키워드를 핵심으로 삼지 않았으며, 관념의 기원과 변천에 대한 대량의 실증적 예문을 결여하고 있다. 때문에 분석은 종종 철학적 추측에 머무르고 있다.

『관념사대사전』의 편집장과 작자들이 그 결함에 대한 의식이 없던 것은 결코 아니다. 관념사 연구의 창시자 러브조이는 일찍이 관념을 표현하는 어휘의 의미 변화 연구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관념을 연구하는 역사학자의 또 다른 작업은, 만약 그가 더 큰 사상운동에서 진정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알고자 한다면, 철학적 의미론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sup>51)</sup> 그러나 러브조이는 어떻게 키워드를 이용하여 철학적 의미로 분석을 하는지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았다. 1960년대에 『관념사대사전』을 편집할 때 그 책은 ‘자연법’과 ‘자연권리’ 조목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자연법’의 서술은 자연과 법률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 … 근대 작자 에릭 볼프(Eric Wolf)는 ‘자연’에 12가지 정의가, ‘법률’이란 단어에는 10가지 뜻이 있다고 산출했다. 이렇게 계산하면 자연법에는 120가지 정의가 있어야 한다.”<sup>52)</sup> 그러나 이때 이 120가지 정의의 전후 관계를 궁구하려 한다면 기술적으로 거의 방법이 없다. 어떤 의미에서 말한다면 근 반세기 이래 관념사 연구의 쇠락은 그것을 경험적으로 실증할 수 없다는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키워드 의미분석을 통하여 사회문화 변천을 연구하는 단계는 영국 학자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가 그 첫발을 내딛었다. 지적해야 할 것은 윌리엄스는 관념사 연구자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 선 사회문

49) Arthur O. Lovejoy, 1948, “The Historiography of Ideas,” *Essay in the History of Idea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50) 불교 등과 같은 개별 항목 이외에, 동양과 기타 문명의 중요한 관념이 기본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51) Arthur O. Lovejoy, 2002, 『存在巨鏈』,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13~14쪽.

52) 『觀念史大辭典』(1), 臺北: 幼獅文化事業公司, 1988, 180쪽.

화사가라는 점이다. 그는 다른 시대, 다른 집단이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에 대해 유달리 민감했다. 1780~1950년의 200년간 영국에서 일어난 사회문화적 변천을 효과적으로 논하기 위해 윌리엄스는 이 시기의 유명한 소설과 고전작품에서 ‘공업(工業)’, ‘민주(民主)’, ‘계급(階級)’ 등과 같은 키워드를 뽑아 그 의미 변화 과정을 추적분석하고, 그것들을 사회문화 변천을 조성하는 참고지표로 삼았다. 본래 관념사학자에게 있어서 관념의 변천은 철학사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험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키워드가 꼭 붙들 수 있는 정점(定點)이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심지어 ‘공업’, ‘민주’, ‘계급’ 등과 같은 단어가 19~20세기 영국의 사상변천 지형도를 제작하는 거점이 된다고 했다.<sup>53)</sup> 이것은 그가 정치, 종교, 경제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관념의 변화가 곧바로 언어에 나타남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와 관련 있는 단어들의 의미 이해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문화’의 의미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종종 ‘계급’, ‘예술’, ‘공업’, ‘민주’에 대한 이해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는 이러한 연관은 사상뿐만 아니라 역사의 구조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sup>54)</sup>

윌리엄스는 100년이 넘는 영국 사회문화의 변화를 부각하려면 사실 더 많은 어휘를 고찰해야 함을 깨닫고, 『문화와 사회—1780~1950년 영국 문화 관념의 발전』이라는 책의 부록에 60개의 키워드를 수집했다. 나중에 부록을 새롭게 단행본으로 만들어 출판한 책이 『키워드: 문화와 사회의 어휘』이다. 1980년대까지 그 책은 130여 개 어휘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고찰했다. 어휘가 증가함에 따라 두말할 것 없이 키워드 사전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보통 사전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는 키워드 사전은 기존의 사전만큼 그렇게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여겼다. 윌리엄스는 그것

을 어휘에 대한 일종의 질의 탐문의 기록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는 이 점에 깊이 공감한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관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사고하던 우리는 마침내 기술적인 방법을 채택했다. 다시 말해 관념을 키워드로 표현되는 사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정의를 사용하면 키워드 사전은 검증된 관념사대사전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가 야기한 관념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대표한다.

러브조이가 1930년대에 제기한 역사의미론 연구 강령으로부터 1960년대 『관념사대사전』의 편집 출판 및 윌리엄스가 1950년대에 시작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영국 문화 관념 변천 연구까지, 우리는 양자의 결합이 새로운 방향이 될 것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향을 실천하려면 새로운 도구와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방법이다.

오늘날 우리는 마침내 관념사에 21세기의 새로운 자리를 부여할 수 있다. 우리는 인문학 연구에서 실증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곧 관념사 연구가 경험을 사용하여 증명하는 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날이 갈수록 세분화되는 분과가 빚어낸 연구대상 간의 단절에 불만을 품는 것이 관념사 연구가 독립된 전공 분야가 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니다. 사실상 과학 결정론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역사를 사회사, 경제사와 동일시하고 인간의 사상을 소홀히 한 데서 오는 병폐를 보는 것이다. 학제 통합에 대한 중시 또한 역사 연구에서 파편적인 사실 고증만을 중시하는 경향을 바로잡고, 철학적 사고와 이해 정신을 인문사회 연구에 주입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일 따름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키워드의 역사의미론적 분석이 일단 관념사의 전통적 방법과 결합한다면 이 학문에 훨씬 드넓은 앞날을 열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관념사 연구에 훨씬 정교한 실증적 기초를 찾아 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관념사와 역사, 사회언어학의 학제 통합을 촉진시키는 데 유리한 장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후의 관념사 연구에서 동아시아 근대 관념의 기원과 변천 연구는 이 방면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53) Raymond Williams, 1985, 『文化與社會—1780年至1950年英國文化觀念之發展』,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03~111쪽.

54) Raymond William, 2003, 『關鍵詞』, 臺北: 巨流圖書公司.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탐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상황과 대체적으로 비슷하게도, 동아시아 사회와 문화에 현대적 전환이 발생한 시기는 19세기 중엽~20세기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관계된 어종(語種)도 간단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만약 역사의미론으로 서구 관념의 기원과 변화를 고찰한다면 가장 큰 난점은 어종이 다양하고 시간 간격이 크다는 사실이다. 희랍어, 라틴어와 근대 유럽 언어 사이의 격차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세 언어만 해도 통일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19세기 동아시아의 역사 문헌은 대부분 한자로 기록되어 있기에 동아시아에는 이런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본 데이터베이스’는 1830~1930년까지 1억 2천만 자에 달하는 중국의 중국어 문헌을 수록했으며,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이용하여 중국 현대 정치 관념에서 근대적 정치 관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할 수 있었다.

데이터베이스가 점차 확대된다면, 즉 중국어 문헌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순전히 중국어 문헌만을 수록한 것에서 19~20세기 30년대 이전의 중·일·한 삼국의 문헌까지를 포함시킨다면 동아시아 근대적 관념의 기원, 형성 더 나아가 전파, 상호 영향을 밝혀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서구의 유사한 데이터베이스보다 먼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동아시아 언어 자체의 성질과 관련 있다. 우리는 동아시아 언어학 연구가 그 시작부터 관념사와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다. 중국어를 예로 들면 서구 문자와는 달리 중국어에는 단어의 정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어학자들은 그것이 관념과 관계있다고 여기게 된다. 가장 흥미로운 예는 언어학자가 단어를 정의하는 것은 반드시 관념에 의거해야 함을 발견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여금희(黎錦熙)는 1924년 『신저 국어문법(新著 國語文法)』에서 ‘사(詞)’에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 “‘어사(語詞)’는 줄여서 ‘사’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언어 속 관념 하나하나의 표시이다. 관념은 의상(意象)이라고도 하며, 영어로는 idea이다.”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일체의 감각, 반영된 지각, 상상 내지 개념 등은 무릇 인식작용으로 생긴 것이

며, 모두 관념이라고 부를 수 있다.”<sup>55)</sup> 물론 오늘날 보면 여금희의 관점은 결코 정확하지 않다. 중국어에서 단어(詞)는 의미를 나타내는(表意) 최소 언어 단위로, 그것들이 반드시 사상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념에 대한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중국어에는 일부 단어(詞)만이 관념이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단어(詞)의 규정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표의(表意), 특히 관념과 관계있는 것은 키워드의 역사의미론을 시작부터 언어학과 뗄 수 없게 만든다. 중국어에서 소증(疏證) 연구의 발달 및 중국의 사전 자체가 키워드 사전과 다소 비슷하다는 점도 모두 그 예이다. 이는 역사 의미론으로서의 관념사 연구가 중국 언어학 연구에 있어서 양호하고 견실한 기초가 됨을 설명한다.

프랭클린 보머(Franklin L. Baum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관념사는 심사숙고하는 학문이다. 그것은 역사와 철학의 경계선에 위치하여 한 몸의 양자의 목표를 갖추고, 한편으로는 요새 사람들이 상세히 연구하도록 과거로부터 갖가지 가치들을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여러 역사적 원인들을 해명한다고 할 수 있다.”<sup>56)</sup> 만약 관념사에 대한 우리의 정의와 제기한 새로운 방법이 정확한 것이라면 관념사는 장차 역사, 철학, 언어학 3대 학문의 경계선에 처할 것이다. 그것은 인문정신을 대표하는 심사숙고하는 학문일 뿐만 아니라 인문과 과학의 새로운 종합을 반영한다.

55) 王立, 2003, 『漢語的社會語言學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쪽.

56) Franklin L. Baumer, 1988, 『西方近代思想史』,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4쪽.

##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葛顯禮([英]Henry Kopsch), 1903, 「光緒二十二年通商各口華洋貿易情形總論」, [造冊處稅務司]於寶軒驢莊輯, 『皇朝蓄艾文編』卷33 稅則1.
- 吉慶, 1799, 「兩廣總督吉慶奏外夷貿易情形并催貨船依限回國片(四年十一月初三日)」, 『清嘉慶朝外交史料』第1輯.
- 南贛巡撫 國器, 1656, 「軍器歸營製造疏(順治13年)」, 『皇朝經世文續編』卷71 兵政2·兵制下.
- 唐才常, 1897, 「交涉學第四」, (續)(湘學新報) 『湘學報』7月29日차.
- 梁廷柎, 1846, 「合省國說」卷2, 『海國四說』.
- 吏部侍郎 梁清標, 1655, 「敬陳用人三事疏(順治12年)」, 『皇朝經世文編』卷17 吏政3·銓選.
- 李鴻章與森有禮, 1884, 「照錄李鴻章與森有禮問答節略」, 『清季外交史料』之五.
- 百齡, 1809, 「兩廣總督百齡奏嘆商懇請准其祖家貨船照常貿易摺(十四年八月初七日)」, 『清嘉慶朝外交史料』第3冊.
- 徐文縉 等, 1850, 「徐廣縉等又奏英報所載文翰赴津原因并有以福建港口換臺灣之陰謀片」, 『咸 朝籌辦夷務始末』卷2.
- 梁啓超, 1899, 「東籍月旦」, 『飲冰室文集之四』.
- 汪元方, 1850, 「請整頓捕務因時制宜疏(道光30年)」, 秀水 王延熙 翼亭 王樹敏 政聲, 『皇清道咸同光奏議』卷56 兵政類·保甲.
- \_\_\_\_\_, 1851, 「請飭停止增附捐教疏(咸豐元年)」, 武進盛康旭人, 『皇朝經世文續編』卷21 吏政4·銓選.
- 張德彝, 1873, 『隨使法國記』.
- 張佩綸, 1884, 「閩海疆會辦張佩綸致樞垣請旨撥南洋兵船赴閩電」, 『清季外交史料』卷42.
- 鄭觀應, 1893, 「自強論」, 『盛世危言』.
- 廷寄, 1839, 「據駱秉章摺著林則徐等妥議具奏」, 『道光朝籌辦夷務始末』卷7.

太炎, 1908, 「四惑論」, 『民報』第22號.

奕 奕, 1860, 「奕欣等又奏法使照會請給南北堂執照又有國書未呈等語片」, 『咸 朝籌辦夷務始末』卷68.

胡渭, 『洪範正論』卷1.

『觀念史大辭典』(1), 臺北: 幼獅文化事業公司, 1988.

『尚書注疏』卷15, 「周書·洛誥 第十五」.

「選舉民主」, 『萬國公報』同治 13年 10月 12日차(1874. 12).

『清嘉慶朝外交史料』.

「楚三言集」, 『湖北學生界』第5期, 1903年 5月 27日.

### 2. 단행본

高坂史朗, 2006, 『近代之挫折: 東亞社會與西方文明的 撞』,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金觀濤·劉清峰, 2008, 『觀念史研究: 中國現代重要政治術語的形成』, 香港: 香港中文大學當代中國文化研究中心.

王立, 2003, 『漢語的社會語言學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任達, 2006, 「導言」, 『新政革命與日本: 中國, 1898~1912』,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佐藤慎一, 2008, 『近代中國的知識份子與文明』,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Min Tu-ki, 1989, *National Polity and Local Power: The Transformation of Late Imperial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Arthur O. Lovejoy, 1948, "The Historiography of Ideas," *Essay in the History of Idea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_\_\_\_\_, 2002, 『存在巨鏈』,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Franklin L. Baumer, 1988, 『西方近代思想史』,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Raymond Williams, 1985, 『文化與社會—1780年至1950年英國文化觀念之發展』,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_\_\_\_\_, 2003, 『關鍵詞』, 臺北: 巨流圖書公司.

W. Travis Hanes III · Frank Sanello, 2005, 『鴉片戰爭: 一個帝國的 迷和另一個帝國的墮落』, 北京: 生活·讀書·新知 三聯出版社.

## 3. 논문

- 葛劍雄, 1998, 「就事論事與不就事論事—我看《懷柔遠人》之爭」, 『二十一世紀』4月號.
- 金觀濤·劉清峰, 1996, 「新文化運動的另一種圖像」, 『五四運動八十周年學術研討會論文集』, 臺北: 國立政治大學文學院.
- 羅志田, 1998, 「夷夏之辨與‘懷柔遠人’的字義」, 『二十一世紀』10月號.
- 張隆溪, 1998, 「甚麼是‘懷柔遠人’?正名, 考證與後現代式史學」, 『二十一世紀』2月號.
- Benjamin Elman·Theodore Hutters, 1997, 「馬嘎爾尼使團, 後現代主義與中近代中國史: 評周錫瑞對何偉亞著作的批評」, 『二十一世紀』12月號.
- Jin Guantao and Liu Qingfeng, 2005, “From ‘Republicanism’ to ‘Democracy’: China’s Selective Adoption and Reconstruction of Modern Western Political Concepts(1840~1924),”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Exeter, England), Vol.26 No.3.
- Joseph W. Esherick, 1997, 「後現代式研究: 望文生義, 方爲妥善」, 『二十一世紀』12月號.

## Abstract

## The Significance of the Database Analyzing Technique in the Study of the History of Ideas

Liu Qingfeng (Chinese Culture Institute of Hong Kong)

■ **Key Word** : New interpretation of ideas, Historical meaning of important keywords, Study of history of ideas, Basic use of database system, Intellectual history

Since the 1950s when Raymond Williams established the analysis of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meanings of key terms as a means of tracing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culture, the analysis of the historical meaning of keywords has become the main theme of the study of history of ideas.

This essay introduces our basic technique of making use of the database system to study the origin of Chinese modern political thoughts and its transformation. In our study, we propose a new interpretation of ideas: we understand an idea to be the expression of thoughts by means of keywords, and we also primarily conclude that the best method for the study of the history of ideas is the database system. This system requires the building of a database, identifying the keywords used to express the ideas in question, and retrieving sample sentences through human-computer interaction, confirming the

dictionary and textual meanings of keywords by analyzing the meaning of each sentence, analyzing and computing the meanings and connotations of the keywords, and, hence, building up the database of sentences which contain the keywords being studied. Our study of the origin and transformation of ideas is founded on the process described above, and we believe that, through this method, the study of the history of ideas is open to practical examination and we can build on our experience.

The study of history of ideas and of intellectual history through the use of the database system will lead to a huge revolution in the study of the humanities. Besides investigating the internal logic of the transformation of ideas in more details, and examining existing ideas, it will provide a new and powerful tool for co-operation between many subjects (including language study, philosophy, etc.). In addition, due to shared language sources in China, Japan and Korea, where the adoption and development of modern ideas is concerned, as well as the short time-frame involved and the comparatively limited number of historical texts and their close interaction, the advantages of using the database system in the study of history of ideas in East Asia will be all the greater.